

소감문

교과목명	스타트업초청강연	담당교수명	박종용	강연일자	2018.12.04.화
강연제목	글로벌 창업과 투자 유치 사례			강연자	이선미
학과 및 학년	일본학과 1학년	학번	2018049807	성명	심유빈

이번 강연은 조금 들어보지 못한 직업에 관한 강연이었다. 액셀러레이터라는 분야이다. 액셀러레이터란 창업자를 선발하여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보육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Dropbox, Airbnb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미국은 Y-combinator(2005년 설립)의 액셀러레이터 기업의 비즈니스 효시로 대성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2016년 11월 정부의 주도로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기업들이 공식 등록을 하기 시작하였고, 강사님이 속해있는 와이앤아치는 2017년 1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등록하였다고 한다.

강사님이 사업을 하며 경험한 케이스를 여럿 설명해주셨는데 그중 인상 깊게 본 하나가 팡귀니와 서울 한국어이다. 팡 귀니의 경우 한 개인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관절 인형으로 만들어졌더니 킥보틀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성하였다. 지금은 이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어플 등의 또 다른 서울 한국어 또한 개인이 시작하였던 아이디어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을 늘리고, 개발자를 찾아 현지에 나가 홍보를 하며 점점 사업 규모가 커졌던 케이스이다. 서울 한국어는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중국어 사용자를 한국어 교육자와 매칭을 해주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대표가 중국에 가 이 어플에 관한 소개를 하였더니 대표의 통역을 해준 통역사가 자기 친구가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중이리 소개해주고 싶다 하여 소개받았더니 꽤나 큰 학원이었던지라 그 학원과 협약을 맺어 연계를 하고, 연세어학당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와 커리큘럼을 짜는 등 대성중이라고 한다.

액셀러레이터라는 분야의 사업이 있다는것은 처음알았다. 스타트업은 오직 개인이 시작해서, 혼자 커리어를 쌓아나가거나 알아서 직원을 구해서 쌓아올려야 하는것이라 생각했는데 강사님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액셀러레이터 기업에서 자금도 지원하고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 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알게되어서 내가 창업을 할때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고 알아두어서 손해는 보지않을것이라 생각했다.